

AUTHOR 박완철 (Wan Chul Park)

TITLE 말씀과 경험의 통합 관점에서 본 존 칼빈의  
설교신학 (John Calvin's Theology of Preaching  
in View of the Integration of the Word and  
Experience)

IN 신학정론(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23 no.2 (November, 2005):163-199

## 말씀과 경험의 통합 관점에서 본 존 칼빈(John Calvin)의 설교신학

[박 원 철/ 설교학 · 전임강사]

성경적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인간의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설교에서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라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개혁주의 설교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강단과 설교가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더욱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경험을 강조하느냐 하는 강조의 차이 때문에 개신교의 설교 안에도 불필요한 이원론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라는 개혁주의 설교의 근본 명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란 명제에 대해 확고한 역사적, 신학적 기초를 갖고 있다면 오늘날 유행하는 지나친 청중 중심의 경험 설교나 그 반대편 극단인 강단 중심의 장황하고 지루한 설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논고에서 적어도 개혁주의 설교에서는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라는 주제가 언제나 최우선 과제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혁주의 신학의 대부인 존 칼빈(1509~1564)을

다루려고 한다. 칼빈의 설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종교개혁 초기부터 설교에서 말씀과 경험의 통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본 논고는 개혁주의 설교의 기초가 되는 칼빈의 성경과 설교와 설교자들에 대한 생각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실제로 칼빈의 강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사이의 관계가 이 둘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개혁주의 설교의 전통이 지난 몇 가지 공통 요소들을 보여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설교의 기초를 세웠던 사람들이 확신했던 것이요 그 다음 세대로 넘겨진 소중한 유산들이다.

본 논고에서는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과 말씀의 두 측면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설교에 대한 칼빈의 개념이 '경험'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이고 마지막엔 칼빈 자신의 설교실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말씀의 의의에 대한 칼빈의 견해: 기독교적 경험과 관련하여

### 1.1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의 두 가지 측면

현대 서구세계가 물려받은 종교적, 문화적, 정신적 유산은 칼빈의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sup>1)</sup> 실제로 개신교 신학의

1) A.E. McGrath,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lackwell, 1990), pp. 219-220, 247-248; W.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1. 알리스터 맥그拉斯에 따르면 칼빈이 끼쳤던 영향력을 신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로 중세시대의 노예상태를 떨쳐버린 "진보적인 세계관"이었으며 손쉽게 일반화하거나

모든 내용은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칼빈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신학자의 우선 과제는 성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계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다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었고 그의 모든 신학적 작업은 성경의 진리를 명료하게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점에서 그는 실로 "성경의 신학자"였다.<sup>2)</sup> 칼빈의 생각에 로마가톨릭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는 성경을 교회의 절대기준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었다.<sup>3)</sup> 반면 칼빈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우선적으로 강조점을 두었다. 나아가 교회 안의 신뢰할 만한 가르침에 대한 유일한 기준으로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그의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sup>4)</sup> 그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데 있어 성경을 유일한 지침으로 추구해야한다"<sup>5)</sup>고 믿었고 따라서 그의

추상화할 수 없는 종교적 운동이었다. 자신의 신학과 영성을 통해 칼빈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구체성과 호소력이 있는 칼빈주의는 삽시간에 서유럽을 사로잡았고 당시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2) J.H. Leith, "John Calvin-Theologian of the Bible," *Interpretation* 25 (1971), p. 344. 또한 B. Cottret, *Calvin: A Biography* (Edinburgh: T&T Clark, 2000), p. 342; R.S. Wallace, "Calvin's Approach to Theology,"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5 (1987), p. 132를 볼 것.

3) T.H.L. Parker, "Calvin the Biblical Expositor," *Churchman* 78 (1964), p. 177.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칼빈은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저술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부들의 권위를 성경보다 우위에 두지는 않았다. 대신 칼빈은 그들의 권위 역시 성경에 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고히 믿었다. A.N.S. Lane,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 pp. 35-37 참조.

4) *Inst. 4.8.8*. 본 논문에서는 J.T. McNeill (ed.) and F.L. Battles (tr.),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이후론: *Inst.*]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Leith, "Calvin," p. 330을 볼 것.

5) *Inst. 1.13.3*.

전 신학체계를 성경에 근거하여 세웠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경은 모든 교리를 시험하는 진정한 시금석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 자체가 모호하여 종종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을 놓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이런 테스트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성령의 분별을 동시에 힘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성령이야 말로 분별의 영”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요 안내자이신 성령과 함께라면 신자들은 어떤 교리에 대한 진정한 판단을 성경 외에 다른 무엇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sup>6)</sup>

칼빈에게는 성경이 모든 기독교 교리를 시험하는 변함없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교리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거나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칼빈의 신학에는 놀랄 만큼 일관성과 동질성이 존재한다.<sup>7)</sup> 교회와 교회의 신학을 위해 성경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그의 확신은 그의 모든 저술들에 나타나는 사고의 일관성을 가능케 하였다.

성경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라는 믿음과 더불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확실히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칼빈이

자신의 신학과 설교에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요 기준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성경과 말씀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좀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돈 디브리스(Dawn DeVries)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8)</sup> 즉 성경말씀을 인용한다고 그것이 곧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15 해석에서 칼빈은 거짓 선지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sup>9)</sup> 많은 경우에 칼빈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구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양자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칼빈에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나르는 “하나님 말씀의 전달 매체”이지만 성경이 반드시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sup>10)</sup> 칼빈에 따르면 성경말씀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sup>11)</sup> 그러나 이 말이 함축하는 바는 거울은 곧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시물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sup>12)</sup>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단순히 인간의 말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성령의 내밀한 증거”(*arcano testimonio spiritus*)<sup>13)</sup> 말로 성경에 담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sup>14)</sup> 헤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에 의하면

6) *Comm. on Acts 17:11*, in J. Calvin, *The Acts of the Apostles 14-28*, eds. D.W. Torrance and T.F. Torrance, tr. J.W. Fras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6), p. 101. 이하 칼빈의 신약주석은 D.W. Torrance and T.F. Torrance (eds.),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12 vols. [이후본: *Comm.*] (Edinburgh: St. Andrew, 1959-1972)를 사용하였다.

7) A.M. Hunter, *The Teaching of Calvin: A Modern Interpretation* (London: James Clarke, 1950), p. 45; J.I. Packer, "Calvin the Theologian," in G.E. Duffield (ed.), *John Calvin: A Collection of Essays* (Grand Rapids: Eerdmans, 1966), p. 152. 패커 역시 칼빈이 저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형성하였고 평생 동안 자신의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저술에서 칼빈의 이러한 일관성은, 예를 들면 그의 『기독교강요』(비록 많은 다양한 측면들을 갖고 있는 책이지만)에서 분명히 보인다.

8) D. DeVries, *Jesus Christ in the Preaching of Calvin and Schleiermacher*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6), pp. 15-16. 물론 칼빈에게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객관적 계시의 말씀이다. 이 점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Neo-orthodoxy)와는 다르다. 그러나 칼빈은 이 객관적 계시가 주관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9) *Comm. on 2 Tim. 3:15*, in J.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 T.A. Smail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4), p. 329.

10) J.T. McNeill, "The Significance of the Word of God for Calvin," *Church History* 28 (1959), p. 133.

11) *Inst. 3.2.6.*

12) J.K.S. Reid, *The Authority of Scripture* (London: Methuen, 1957), p. 38.

13) *Inst. 1.7.4.*

14) McNeill, "Significance," p. 133; *Inst. 1.9.3.* 아울러 R.C. Prust, "Was Calvin a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확신은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 있게 설교될 때에만 설교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었다.<sup>15)</sup>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보통 ‘성경’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하지만 때론 그렇지 않다. 이는 어떤 특별한 문맥에서 그가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논지와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에 자신을 적용시키시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sup>16)</sup>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 말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객관적으로 듣게 해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논의와 성경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진정한 지식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sup>17)</sup> 이는 이를 테면 성경의 인간적 측면(a human aspec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성경이 지난 객관적 증거나 사변적이고

Biblical Literalis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0 (1967), pp. 314-316을 볼 것.

15) H.A. Oberman, "Preaching and the Word in the Reformation," *Theology Today* 18 (1961), pp. 26-28.

16) P.W.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59; T.H.L.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71), pp. 58-59. 또한 *Inst. 4.1.5; Comm. on Jn. 21: 24*, in J.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tr. T.H.L. Park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1), p. 226을 참조할 것.

17) Cf. *Inst. 1.1.1*. 아울러 F.L.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pp. 149-152, 245-246을 볼 것.

지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다.<sup>18)</sup>

그러나 다른 한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증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도 ‘계시된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믿음이나 경험적 지식과 관련된 신적 측면(a divine aspect)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문제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는 일은 인간능력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영적 실재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성경의 풍부한 의미(full sense)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성경해석에서 아무리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sup>20)</sup> 성경에 대한 논리적이고 정확한 설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충분치 않다. 칼빈은 인간의 ‘논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한다.<sup>21)</sup> 하지만 신학 작업에서 논리적인 치밀함이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제를 외면한 채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았다. 성경의 진리를 설명함에서 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경 이해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험적 이해(experiential understanding)를 동시에 강조한다.<sup>22)</sup> 칼빈이 주장하는 신학의 목표는 정확한 논리로 사람들을 끌어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의 영혼 속에 경험적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지적인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던 대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왜냐하면 이런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18) D.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pp. 140-141.

19) S. Suzanne, *Calvin against Himself: An Inquiry in Intellectual History* (Hamden: The Shoe String Press, 1984), p. 155. 또한 Packer, "Theologian," p. 163도 참조.

20) Packer, "Theologian," p. 167.

21) 예를 들면, *Inst. 2.2.15*.

22) C. Partee, "Calvin and Experienc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6 (1973), pp. 175-178.

서 실제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칼빈이 지금 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잘 균형 잡힌 신학적 합리성 때문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경험에 대해 그가 일관성 있고 이해할 만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 1.2 심정적 지식(Heart-Knowledge)의 의의와 하나님 말씀

차가운 논리학자라는 칼빈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와는 달리 실제로 그는 감정적인 요소들이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sup>24)</sup> 칼빈에게는 진정한 종교가 머리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자리인 마음속에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 지식은 단지 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인 것인데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sup>25)</sup> 그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되는데 이 지식은 머리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상념과 같은 지식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제대로 소유한다면, 그리고 그 뿌리를 마음에 둔다면 이 지식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지식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신적인 능력은 우리의 내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능력으로 인한 유익을 현재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 지식도 가질 수 없는 막연한 신을 상상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적이며 심정적인 지식에 의해 보다 깊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다.<sup>26)</sup>

칼빈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일깨우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적인 면도 활성화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도 감정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sup>27)</sup> 칼빈은 소위 ‘중립적 지식’(neutral knowledge)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쓸데없이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놓는 케변론자들을 비판하였다. 칼빈에게는 “지루하고 냉담한 하나님 지식”이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모순인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정한 지식은 그 본질에 있어 체험적이기 때문이다.<sup>28)</sup> 그는 전리에 대한 최종 기준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적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감각(*sensus divinitatis*)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sup>29)</sup> 칼빈에 의하면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지식에 대한 제한된 정보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 나머지 더 이상 충만한 지식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지식의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만다.<sup>30)</sup>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는 복음 사건들의 확실성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형편이다. 칼빈은 이런 견해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복음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지적 동의라도 심정 그 자체에는 전혀 와 닿지도 않고 그것을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sup>31)</sup>

26) *Inst.* 1.5.9.

27) *Comm.* on 1 Jn. 2:3, i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John*, p. 245.

28) E.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pp. 26-28.

29) Richard, *Spirituality*, p. 180.

30) 칼빈의 구약주석과 인용은 Eerdmans사가 1948-1950에 출판한 칼빈주석 (이하 *Comm.*)을 사용하였다. *Comm.* on Dan. 8:15, in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vol. 2, tr. T. Myers (Grand Rapids: Eerdmans, 1948), p. 111을 볼 것.

31) *Inst.* 3.2.10.

23) Partee, "Calvin," p. 171.

24)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1974), p. 164.

25) J.N. Westhead, "Calvin and Experimental Knowledge of God," *Evangel* (Autumn 1993), pp. 71, 73.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예를 들면 “관계적 지식,” “실험적 지식,” “설득적 지식,” “심정적 지식,” “믿음의 지식” 등이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자들은 주로 인간의 이성적인 가능을 강조했는데 칼빈은 이런 전통에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적 지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마음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칼빈에 의하면 이런 경험적 지식은 마음의 활동(activity of the heart)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지성의 활동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지적인 지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지적인 지식이 사실적이며 분석적인 반면 경험적 지식은 인간 이성이나 증명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나아가 이는 순수한 지적 등의 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설득적인 지식(a persuasive knowledge)이다. 성령께서는 이런 머리만의 지식을 활성화하시고 또한 그것을 관계적 지식(relational knowledge)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하여 인간성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 형식화된 지식으로서 지적인 지식은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설명적이다. 그러나 심정적 지식(heart-knowledge)은 형식화하거나 구체화할 수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정적 지식 혹은 마음의 지식은 본질상 초이성적이며 인간적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고 우리 두뇌의 인식 없이도 우리의 지성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sup>33)</sup> 성령께서는 이런 탁월한 지식을 조명하셔서 자연적인 인간이성이나 인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확신을 얻게 하신다.<sup>34)</sup>

믿음에 관한 논의에서 칼빈은 말씀과 관련된 기독교적 경험의 중요성을 좀더 설명하고 있다. 로마서 10:17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을 예로 들면서 그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즉 믿음과

32) J.N. Westhead, "Calvin and Experimental Knowledge of God," *Papers read at the Westminster Conference* (1995), p. 12.

33) I. Paul, *Knowledge of God: Calvin, Einstein, and Polanyi*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7), pp. 4, 8, 18, 65, 92. 아울러 *Inst. 1.7.4-5*도 참조.

34) Dowey, *Knowledge*, pp. 184-185.

말씀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그러나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라 해도<sup>35)</sup>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진정한 믿음이란 항상 내적인 확신과 설득이라는 인격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렬한 개인적 감각이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sup>36)</sup> 칼빈의 견해로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지식이란 순수하게 객관적 이거나 어떤 정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은 또한 사람의 내면세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어떤 것에 대한 일반적 지식도 아니다. 나아가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과도 별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이 지식의 특징은 '우리를 향한'(보다 나은 표현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개인의 확신을 동반하는 인격적인 지식이다. 영적 지식의 이런 주관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내적 설득과 언제나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다.<sup>37)</sup> 예를 들면 칼빈은 기독교강요 3.2.15에서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란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진정한 믿음은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성을 요구한다. … 성경에는 언제나 믿음을 그 출처로 하는 전혀 다른 느낌의 충만한 확신이 나타나 있다. 이런 확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세계 속에서 먼저 이런 확신의 달콤함을

35) *Inst. 4.14.6*. 동일한 생각이 *Inst. 4.8.9*에도 나타나 있다.

36) E.D. Willis, "Rhetoric and Responsibility in Calvin's Theology," in A.J. McKelway and E.D. Willis (eds.), *The Context of Contemporary Theology: Essays in Honor of Paul Lehmann* (Atlanta: John Knox, 1974), p. 51.

37) H.J. Forstman, *Word and Spirit: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pp. 102-104. *Inst. 3.2.16*도 함께 볼 것.

정말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기독교강요 3.2.6~20에 나타난 칼빈의 진술을 주의 깊게 조사한 후 책은 포스트만(Jackson Forstman)은 칼빈의 많은 진술들이 “설득,” “경건한 감정,” “확고한 인침,” “성령의 감동,” “마음,” “기쁨,”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 등과 같은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sup>38)</sup>

그러나 여기서 칼빈이 경험 그 자체보다 ‘말씀’에 근거한 경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9)</sup> 그에게 말씀은 항상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경험은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뒤따라오는 것이다. 말씀과 경험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정적 지식을 경험하는 매개체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독교가 말뿐인 종교로 퇴색하진 말아야 하지만 칼빈에 의하면 영적 경험은 그 경험을 가능케 하고 또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경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칼빈도 성경의 절대권위를 믿었을 뿐 아니라 성경만이 하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성경에 표현된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으로 확신했다.<sup>40)</sup> 칼빈은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하면 칼빈에게는 신자의 경험이 본질적으로 성경의 언어를 통해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신학적 저술들이나 특히 설교를 통해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바로 말씀과 경험을

38) Forstman, *Word*, p. 101.

39) J.R. Beeke,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Peter Lang, 1991), pp. 55-56.

40) McGrath, *Life*, p. 132.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진정한 영적 경험은 물론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를 위해 신자의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sup>41)</sup> 경험에 대한 칼빈의 견해와 말씀, 믿음, 성경, 성령에 대한 그의 교리들 사이엔 실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경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러한 여러 다양한 교리들에 포함된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칼빈은 그가 주장하는 교리 전체를 경험에 호소하고 있다.<sup>42)</sup>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점이 설교에 대한 그의 생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설교에 대한 칼빈의 개념: 경험과 관련하여

### 2.1 교회를 위한 설교의 중요성

의심할 바 없이 칼빈은 교회를 위한 설교사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sup>43)</sup> 그에게 설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며 실로 교회의 생명력 자체”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존중되지 않고 무시되는 모임이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sup>44)</sup> 그는 복음을

41) Westhead, "Calvin," p. 9; Paul, *Knowledge*, p. 67; R.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8), pp. 10-11.

42) Partee, "Calvin," p. 178.

43) 하지만 칼빈은 설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저술에서 이 주제가 부각될 때마다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한 그의 흘어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A.G.P. Van der Walt, "Calvin on Preaching," in B.J. Van der Walt (ed.),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p. 327을 볼 것.

설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구별해주는 “불변의 표식”이라고 종종 주장했다.<sup>45)</sup> 그에게 있어 설교는 여러 많은 기독교 사역의 장르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 자체”였던 것이다.<sup>46)</sup> 칼빈은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여겼고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불렀다.<sup>47)</sup> 그는 다른 종교개혁자들처럼 다른 어떤 사역들, 예를 들어 성례나 교회행정이나 교회의 훈련보다도 설교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 중세교회의 전통에 반대하면서 그는 예배에서 설교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한편 예배의식서나 성찬을 미신적으로 반복하는 일 등을 거부하였다.<sup>48)</sup> 칼빈은 자신이 부름 받은 사명의 본질적 요소를 설교라고 믿었고 따라서 정례적인 설교는 그의 목회사역의 주요 업무였다.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실제로 설교는 그가 제네바에서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시각은 칼빈의 말씀선포 사역을 통해 점차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칼빈은 설교를 통해 제네바 시민들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쳐

44) *Inst.*, 4.2.7.

45) 예를 들면, *Inst.*, 4.1.9; 4.1.10; 4.2.1.

46) Cottret, *Calvin*, p. 295.

47) Leith, "Calvin," p. 330 재인용.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주석들에서 명백히 보이는 것처럼 신학과 관련된 칼빈의 우선적 관심은 이론적이기보다 실체적인 것이었다. 칼빈의 신학저술은 학문이나 신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의 애독자들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로는 신학의 궁극적 임무란 성경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돋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는 자신의 신학을 조직화하였고 또한 당시의 문화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 대화적이거나 설교적인 형태를 사용하였다. Leith, "Calvin," pp. 332-335와 『기독교강요』 서문을 볼 것.

48) A.G.P. Van der Walt, "John Calvin and the Reformation of Preaching," in T. Van der Walt, L. Floor (et al.),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4), p. 194; T.H.L. Parker, *The Oracles of God* (London: Lutterworth, 1947), p. 60. 비록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교회의 성례 둘 다 칼빈에게 진정한 교회의 표지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 성례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개혁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sup>49)</sup>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설교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설교를 기독교 신앙을 일깨우고 신자의 삶을 점진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유일한 도구로 재정하였다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설교가 이처럼 교회에서 “어머니”的 역할을 하면서 믿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듣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동시에 의무적이다.<sup>50)</sup> 그는 설교사역을 충실히 행함으로 인해 “교회는 진리를 유지”하게 되며 동시에 “교회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51)</sup> 네 번째 계명을 강해하면서 칼빈은 ‘주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은 “합당한 명령”이라고 단언한다.<sup>52)</sup> 따라서 신자가 주일성수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는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sup>53)</sup> 나아가 우리는 설교가 그 효과나 교육의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필요하다는 칼빈의 견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설교는 무엇보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하늘의 진리를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부과된 명령이다. 사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49) M. Anderson, "John Calvin: Biblical Preacher (1539-1564),"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2 (1989), p. 168; T.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 (Leicester: Apollos, 1988), p. 243; W.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p. 153; Wallace, *Calvin*, pp. 16-17.

50) *Comm.* on 2 Cor. 13:5, in Calvin, *The Second Corinthians*, p. 173. 또한 A. Dakin, *Calvinism* (London: Duckworth, 1940), p. 106을 볼 것.

51) *Comm.* on 1 Tim. 3:15, in Calvin, *Timothy*, p. 232. 아울러 *Inst.* 4.8.12; *Inst.* 3.23.13도 참조할 것.

52) *Inst.* 2.8.34.

53) *Inst.* 4.1.19.

마치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탁월한 은사들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입과 혀에 자신을 의탁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설교만이 갖는 유일한 특권이다.<sup>54)</sup>

하나님은 자산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핵심 도구로 설교를 선택하셨고 따라서 다른 어떤 교회 사역도 설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칼빈은 설교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울 뿐 아니라 강화하게 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경우에 설교는 마음을 살리는 대신 실제로 죽이기도 한다.<sup>55)</sup> 그러나 칼빈처럼 하나님 자신이 설교의 ‘창시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설교의 가치는 청중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달려있는 것이 된다.<sup>56)</sup>

칼빈은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우선적 명령도 역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다고 상기시킨다.<sup>57)</sup> 그리스도께서 홀로 교회의 기초가 되심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역시 복음을 설교함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이다.<sup>58)</sup> 즉 그리스도 자신이 설교사역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다.<sup>59)</sup> 설교는 이를 테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홀’(the Sceptre)과 같은데 이를

54) *Inst.* 4.1.5.

55) *Comm.* on Isa. 6:10, in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1, tr. W.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48), pp. 214-220; *Comm.* on 2 Cor. 2:15, in *The Second Corinthians*, p. 35; J.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he Light of Recent Research," *Review & Expositor* 86 (1989), p. 31.

56) *Inst.* 4.1.6.

57) *Inst.* 4.16.28; 4.19.28.

58) *Comm.* on Eph. 2:20, in J. Calv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5) tr. T.H.L. Parker, p. 154.

59) *Inst.* 2.9.5.

통해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세운 자신의 왕국인 교회를 계속 통치하신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설교자들의 이런 신성한 의무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신다.<sup>60)</sup> 따라서 설교자들이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 그것은 그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 점에서 칼빈은 설교란 하나님 자신의 진실한 약속을 증거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포”라고 정의한다.<sup>61)</sup>

## 2.2 성경강해의 우선권

칼빈은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했고 진정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요구했다.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설교자의 사역에 권위와 내용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설교란 본질적으로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설교의 주된 임무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학자로서 칼빈은 결코 인문주의로부터 얻은 배움이나 비판의 기술들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는 성경에 종속시켰고 성경의 의미를 자신의 시대에 걸 맞는 보편적인 언어들로 바꾸었다. 성경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칼빈의 설교를 구별시켜주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sup>62)</sup>

60) *Inst.* 4.2.4; 4.1.1. 이를 *Comm.* on Isa. 49:2, in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vol. 4, tr. W.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48), pp. 10-11과 비교할 것. Wallace, *Calvin*, p. 63도 참조.

61) *Inst.* 4.11.1.

62) Leith, "Doctrine," p. 32; McNeill, "Significance," p. 138. 페커 역시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도 칼빈보다 저속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성경에 의존하진 않았다.”고 말한다. J.I. Packer, "Calvin: A Servant of the Word," *Papers read at the 1964 Westminster Conference*, p. 43을 볼 것. 칼빈은 실로 성경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질투하기까

설교자들이 성경말씀에 끌여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다.<sup>63)</sup> 따라서 만일 설교자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의 설교 역시 더 이상 기독교적 설교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태도를 “눈먼 성경주의”(a blind biblicism)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과는 다르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종들(*minister verbi divini*)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종종 설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가르치시도록 성경이라는 거룩한 학교로 가서 배우라고 촉구하였는데 그런 후에야 설교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다.<sup>64)</sup> 그는 “먼저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되지 않고서 전전하고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sup>65)</sup>

의심할 바 없이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설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의 말들을 섞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강해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따라서 칼빈의 견해로는 설교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들이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며 거기 부합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에만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설교할 자격이 있다.<sup>66)</sup> 파커가 지적한 것처럼 칼빈은 설교에서 성경이 극도로

지” 성경을 사랑하였다. 페커에 의하면 칼빈이 바랐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성경적 전리와 권위를 확고히 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쿠퍼(P. Cook)도 칼빈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강해설교를 실천해왔다고 주장한다. P. Cook, "Understanding Calvin,"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2 (1984), p. 57을 참조.

63) *Comm. on Lev. 10:9*, in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vol. 2, tr. C.W. Bingham (Grand Rapids: Eerdmans, 1950), p. 235와 비교.

64) Parker, *Oracles*, pp. 59, 136.

65) *Inst. 1.6.2*.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사도들의 후예로서 설교자의 주요 기능은 성경에 이미 있고 인쳐진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Inst. 4.8.9*를 볼 것.

중요함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성경을 향한 “일편단심의 집중력”과 헌신의 마음으로 설교했던 것이다.<sup>67)</sup>

### 2.3 설교의 경험적 성격

그러나 설교사역과 관련하여 성경을 단순히 거룩한 기록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칼빈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칼빈에게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주로 서로 관련된 두 가지의 아이디어, 즉 ‘하나님의 입’과 ‘교리’ 또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칼빈은 성경의 본질을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생각했다.<sup>68)</sup> 성경적 설교에서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청중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신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는 성경지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칼빈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지적인 지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종종 성경의 명제적 진리는 전달하지만 거기서 그쳐버린 채 회중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설교는 무용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설교는 사람의 감정이나

66) *Comm. on 2 Cor. 1:18*, in Calvin, *The Second Corinthians*, p. 20. 칼빈은 또한 성경이야말로 회중이 듣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의 창작인지를 시험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설교내용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회중이 확신할 수 없다면 설교자가 전달하는 어떤 교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칼빈은 주장했다. *Comm. on 1 Cor. 3:22; 14:29*, in J.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tr. J.W. Fras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0), pp. 82, 302. Parker, *Oracles*, p. 63을 볼 것. 설교자의 대사직(ambassadorship)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관해선 B. Reynolds (tr.), *Sermons on Jeremiah by Jean Calvin* (Lampeter: The Edwin Mellen, 1990), pp. 203-204; T.H.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London: J.M. Dent & Sons, 1975), p. 90을 볼 것.

67) T.H.L. Parker, *Calvin's Preaching* (Edinburgh: T & T Clark, 1992), p. 1.

68) Packer, "Servant," p. 46.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Inst. 1.6-9; 4.8-9*를 볼 것.

감동의 요소를 포함한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실패할 것이고 결국 들었던 설교에 대한 청중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해내지도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설교는 성경에 대한 마음의 이해, 혹은 심정적인 이해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성경에 대한 비판적 지식에만 근거한 설교는 신학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인격적이며 심정적인 성경의 지식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불완전하다. 설득적인 지식이란 설교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인격적으로 동참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설교되는 성경의 메시지를 효과 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행위이다.<sup>69)</sup> 칼빈에 의하면 청중들이 피상적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영향력을 미미하게 느낄 뿐이지만 성령의 능력 하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는 커다란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sup>70)</sup>

디브리스(DeVries)가 칼빈의 공관복음 설교에 대한 분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설교자로서 칼빈은 비록 성경에 전술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의심해본 적이 없지만 성경의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sup>71)</sup> 칼빈은 대신 설교의 기능이 단순히 지적이거나 교육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믿었다. 설교자가 생생한 상상력과 그림 같은 묘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조차도 설교는 단순한 대중연설과는 다르다고 그는 주장한다. 칼빈에 의하면 설교란 설교하는 그 순간 직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청중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적인 기능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대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복음사역을 바로 이행하기 원하는 자들로 말하고 연설하는 것뿐 아니라 청중의 심중을 관통하는 법도 배우게 하라.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 화가들을 소유할 때라야 나무나 돌과 같은 죽은 이미지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어떤 그림도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sup>72)</sup>

더욱이 칼빈은 구원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설교에 현재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 설교란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거나 아니면 복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듣는 자들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것이다. 기독론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성경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설교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임재를 통해 성육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게 된다. 이럴 때 설교가 청중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정말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sup>73)</sup> 칼빈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sup>74)</sup>이라고 분명히 믿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무엇보다 설교라는 수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실재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교는 신자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실감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은 설교강단이 마치 자신의 보좌인 것처럼 거기에 임재하신다.<sup>75)</sup>

개혁주의 전통에서 교회란 정의상 말씀 공동체이다. 교회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부름 받고, 보존되고, 또 성숙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69) Parker, *Preaching*, pp. 31, 39, 114; Paul, *Knowledge*, pp. 73-74.

70) *Comm. on Lk.10:17*, in J.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 2, tr. T.H.L. Parker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pp. 18-19.

71) DeVries, *Jesus*, pp. 26-43.

72) *Comm. on Gal. 3:1*, in Calvin, *Galatians*, p. 47.

73) DeVries, *Jesus*, p. 17. 아울러 *Comm. on Isa. 11:4*, in Calvin, *Isaiah*, vol. 1, pp. 381-382; *Comm. on Jn. 7:33*, in John 1-10, p. 195도 참조할 것.

74) *Comm. on Isa. 55: 11*, in Calvin, *Isaiah*, vol. 4, p. 172.

75) Parker, *Preaching*, p. 27.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이 설교말씀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더해주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얻을 수 없고, 전달되는 단어들은 단순히 언어 상징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설교에 임재하실 때 언어표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실재를 가리키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설교의 굳어있는 언어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어의 벽을 뛰어넘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상승된다. 언어의 이러한 초월적 성격은 성경의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실재에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설교의 핵심이었던 것이다.<sup>76)</sup> 따라서 칼빈은 설교 언어란 그 설교가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영적인 실재를 실제로는 결핍이 있는 단순한 언어 상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대신 칼빈에게서 설교 언어란 ‘나타내주는’(exhibitive) 신호인데, 이는 설교가 묘사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sup>77)</sup>

76) A.E. Lewis, "Ecclesia Ex Auditu: A Reformed View of the Church as the Community of the Word of God,"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5 (1982), pp. 13, 16, 21. 분명히 하나님 자신과 죄로 얼룩진 인간성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인간의 수용력에 적응시키셨다. 그리하여 인간의 언어는 그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경험을 변화시켜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만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로운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설교 안에서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로써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실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McGrath, *Life*, pp. 129-131; Cottret, *Calvin*, p. 345를 볼 것. 칼빈의 “하나님의 적응의 원리”(principle of accommodation)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F.L. Battles,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 31 (1977), pp. 19-38을 참고할 것.

77)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준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하나님 말씀 자체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재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구원의 선물을 실제로 나누어주는 것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설교에서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재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DeVries, *Jesus*, pp. 18-19를 볼 것. 또한 *Inst. 1.9.3; Comm. on Heb. 4:2*, in J. Calvin,

듣는 자에게 신적 실재를 전달하는 설교의 이런 기능 때문에 회중은 인간 언어의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 설교자가 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즉시로 가능케 해주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보다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 지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사건인 것이다.<sup>78)</sup>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하시고 설교를 통해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실 때 사람들은 갑자기 영적인 실체들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특별한 종류의 인식으로 얼마나 분명한지 우리는 이를 ‘사건’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즉각적인 경험으로 마치 육체가 느끼는 물리적 감각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만으론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단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저 알 수 있을 뿐이다.<sup>79)</sup>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인간 사역자라는 매개체를 통해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즉 설교에 자신의 말씀을 일체화시키신다. 따라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의 메시지에 지원하여 반응을 보일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sup>80)</sup>

설교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실존적 차원은 중세시대의 설교에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였다. 비록 중세 때에도 어거스틴(Augustine)이나 베나드(Bernard of Clairvaux)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tr. W.B. Johnsto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3), p. 46; *Comm. on Jn. 1:12; 6:51*, in *John 1-10*, pp. 18, 167-168; *Comm. on 1 Pet. 1:23*, 25 in *Peter*, pp. 252-255; *Comm. on 1 Jn. 1:1-2*, in *The First Epistle of John*, pp. 234-235를 볼 것.

78) Richard, *Spirituality*, pp. 157-158, 162.

79) Packer, "Theologian," p. 166.

80) R.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p. 82.

이따금 설교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설교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보다 중요한 예배의식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고해성사나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에 비해 설교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칼빈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설교의 기능에 대해 생각했던 바는 아주 달랐다. 그들에게 설교의 기능은 성례의식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케 하는 적당한 교리 지식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설교 자체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the decisive encounter)이었다. 오버만(Oberman)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죄인을 만나신다는 의미에서 설교란 “계시적 사건”인 것이다. 물론 설교는 진리에 대한 설명과 권면을 통해 교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설교되는 곳에는 또한 그리스도가 힘 있게 임재하신다. 청중이 마음으로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설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에게 반응을 보이라는 요청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느낀다.<sup>81)</sup> 다음으로 우리는 실존적 관점에서 칼빈의 실제 설교가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칼빈 설교의 실제

#### 3.1 스타일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목회 사역을 경험하였고(1538~1541) 후에는 제네바의 성 피에르(Eglise St. Pierre) 교회도 섬겼다(1542~1563).<sup>82)</sup> 그는 주일날 두 번 설교하였고 1549년부터는 격주로 주중에도 설교했는데

81) Oberman, "Preaching," pp. 16-18.

82) W.S. Reid, "John Calvin, Pastoral Theologian,"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1 (1982), p. 65.

1549년 이후에 기록된 1400편 이상의 설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는 주일 아침에는 신약을, 오후에는 시편을 설교했고 주중에는 주로 구약을 설교했다.<sup>83)</sup>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칼빈은 성경 안의 특별한 책 하나를 정해서 연속설교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sup>84)</sup> 또한 성경적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교부들의 강해설교 전통을 따랐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 크리소스토ム(Chrysostom)을 좋아했다. 바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어서 설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 성경의 책들을 하나씩 강해해 가는 방법이었다.<sup>85)</sup> 그는 어떤 특별한 주제와 그 주제의 논리적 전개방법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성경본문 자체의 순서를 따라 설교의 내용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선호했다. 칼빈은 보통 본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함으로 자신의 강해를 시작했는데 메시지의 적용은 그 뒤에 따라 나왔다.<sup>86)</sup> 칼빈에 의하면 성경 강해자는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책임뿐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현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책임도 떠맡고 있다. 좋은 설교자는 항상 교회의 현재 상태와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자신의 설교 원고를 이런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점검해보아야 한다.<sup>87)</sup> 칼빈의 어떤 연속설교들은 설교 시작 처음부터

83) Anderson, "Calvin," p. 173. 또한 Bouwsma, *Calvin*, p. 29도 참조.

84) Leith, "Doctrine," p. 33. 예를 들면 칼빈은 실제로 1555년 3월 20일부터 1556년 7월 15일까지 신명기서에 관한 200편의 설교를 했고 1554년 2월 26일부터 1555년 3월까지 육기서에 관해 159편의 설교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Parker, *Biography*, p. 92; George, *Theology*, p. 185를 볼 것.

85) Parker, *Preaching*, p. 80. 의심할 바 없이 칼빈은 어거스틴(Augustine)이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같은 선배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기독교 초기 신학자들의 저작에 매우 친숙하였고 필요할 때는 자유롭게 그들을 인용하였다. 칼빈이 교부들의 저작을 인용한 자세한 내용은 Lane, *Calvin*, 특히 Ch. 2를 참고할 것.

86) Leith, "Doctrine," pp. 34-35; T.H.L. Parker,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T & T Clark, 1986), p. 34.

87) *Comm. on Ps.*, in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1, tr. J. Anderson (Grand Rapids: Eerdmans, 1949), xxxv-xlix; *Comm. on Jude 1:4*,

실제로 당시 16세기 제네바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sup>88)</sup> 칼빈의 설교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평범한 설교 스타일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제네바의 회중들이 사용하는 대중언어인 프랑스어로 설교하였다. 이러한 목회적 관심 때문에 칼빈은 친근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개개인에게 말하는 듯한 대화식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자신의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보다 친숙한 것으로 만들려는 목표와 더불어 칼빈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언변을 회중 가운데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었다. 그는 설교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유롭게 그것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칼빈은 은유나 의인법, 널리 알려진 단어나 표현들, 수사학적 질문들, 두운법, 과장법 등을 사용했고 그 결과 설교 스타일이 선명하고 활기 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잘 맞는 것이었다.<sup>89)</sup>

같은 관심에서 칼빈은 설교에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ume III and *The Epistles of James and Jude*, tr. A.W. Morrison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72), pp. 324-325. 또한 Cottret, *Calvin*, pp. 293-294를 볼 것.

88) 파커는 구약과 신약의 책들에 관한 칼빈의 연속 강해설교 중 맨 처음 설교들을 분석함으로 이 점을 확증한다. 예를 들어 파커는 칼빈이 에베소서에 관한 첫 설교에서 곧바로 적용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한다. 칼빈은 "성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읽는데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서신들이 한 시대의 특별한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로도 사용하게 의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지금부터 강해하려고 하는 이 서신서를 요약하자면 …"이라고 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Parker, *Preaching*, p. 82를 보라.

89) Van der Walt, "John," p. 200; Parker, *Preaching*, pp. 139-140, 148; Q. Breen, "John Calvin and the Rhetorical Tradition," in N.P. Ross (ed.), *Christianity and Humanism* (Grand Rapids: Eerdmans, 1968), pp. 125-127; Wallace, *Calvin*, p. 172. 이를 L. Nixon, *John Calvin, Expository Preacher* (Grand Rapids: Eerdmans, 1950), pp. 30-31; Parker, *Oracles*, pp. 78-79와 비교해볼 것.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인간적 개성을 설교에 집어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설교 속에 이러한 인격적 참여는 그가 종종 사용하는 '우리가' 혹은 '우리를'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 있다. 칼빈은 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수사학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경 메시지 자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본문 말씀을 회중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다.<sup>90)</sup>

그러나 칼빈 전문가 중 일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로 교리적인 순수성이나 논리적인 치밀성만 따지는, 냉담하고 무심하고 과도하게 지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강단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박식하긴 하지만 생명력을 없이 단어들을 혼합해 놓은 것 같은 듣기에 지루하고 따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칼빈의 실제 설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 블레이어 레이놀드(Blair Reynolds)는 칼빈의 설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의 학문적 주장들에 관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한다. 즉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칼빈의 설교는 이성적이라기보다 일차적으로 감성적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설교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언제나 자신의 내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침내 청중들의 실제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이다.<sup>91)</sup> 칼빈에게는 설교가 진리에 대한 순전히 지적인 이해의 차원을 훨씬 벗어나

90) Parker, *Preaching*, pp. 116-117; Leith, "Doctrine," p. 38.

91) B. Reynolds, *The Relationship of Calvin to Process Theology as Seen through His Sermons*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3), pp. 27-37. 브린(Breen)도 비록 칼빈을 "논리의 대가"라 부르는데 조금도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성경적 명제들을 증명하는 그의 설교의 수사학적 성격은 논리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칼빈의 개인적인 특성과 감정이 설교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일에 철저히 내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린에 의하면 칼빈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를 스스로 경험하였고 따라서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에 관한 깊은 느낌을 갖게 하였다. Breen, "Calvin," pp. 120, 122ff.를 볼 것.

궁극적으로 회중들의 깊은 감정에까지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감정을 의존하지 말도록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열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설교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내적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도록 의도되어야 한다.<sup>92)</sup> 이 점은 이 문제에 관한 칼빈 자신의 진술들을 살펴볼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 3.2 유파

우선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까지 다루신다고 주장하였다.<sup>93)</sup> 효과적인 설교란 항상 열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설교자의 열심과 열정이 설교에 깊이 스며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교자는 보다 강하고 열정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 그들의 열성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sup>94)</sup> 칼빈은 당시의 설교가 너무 자주 “심정적으로 느껴지는 확신”은 전혀 없이 일상생활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는데, 그 결과 교인들은 단지 “아무 인상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하나님 지식만 머리 속에”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게 된다.<sup>9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따르면 영리한 설교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차갑고 학문적인 철학”으

로 바꾸어놓기 위해 헛된 시도를 반복한다.<sup>96)</sup> 이런 종류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설교와는 달리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반대로 죽은 또 죽이는 의문(killing letter)에 불과한 설교다. 결과적으로 이런 설교는 청중의 귀를 가렵게 하는 것 외에 어떤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다.<sup>97)</sup> 만일 설교가 이처럼 열정 없는 가르침에 그친다면 설교는 “미친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이 되거나 아니면 차갑고 쓸모없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의 잘못된 위선을 부추기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sup>98)</sup>

따라서 칼빈의 견해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의 입을 통해 정말로 말씀하실 때에도 듣는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비록 연약한 인간 설교자에 의해 전달되긴 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성령께서 지성만 조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께서 설교 내용에 부응하는 감정과 함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며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설교자가 단지 외적으로 설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잘못 믿고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sup>99)</sup> 강단에서 차가운 마음은 강단 아래에서도 차가운 마음을 유발한다고 칼빈은 자주 역설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는

92) Reynolds, *Relationship*, pp. 45-46, 54.

93) *Comm. on Heb. 4:12*, in Calvin, *Hebrews*, pp. 50-53.

94) *Comm. on Mt. 11:12*, i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vol. 2, p. 7.  
이율라 *Comm. on Jer. 4:21*, in J.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and the Lamentations*, vol. 1, tr. and ed. J. Owen (Grand Rapids: Eerdmans, 1950), p. 232를 볼 것.

95) *Comm. on Ps. 10:4*, in Calvin, *Psalms*, vol. 1, p. 140. 또한 Wallace, *Calvin*, p. 174도 참조.

96) "The Author's First Epistle Dedicatory," in *Comm. on 1 Cor.*, in Calvin, *The First Corinthians*, p. 1.

97) *Comm. on 2 Cor. 3:6*, in Calvin, *The Second Corinthians*, p. 41.

98) *Comm. on Acts 18:25*, in Calvin, *The Acts 14-28*, p. 144.

99) *Comm. on 1 Jn. 2:3*, i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John*, pp. 245-246; *Comm. on Rom. 3:4*, i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tr. R. Mackenzie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61), pp. 60-61; *Comm. on Hos. 2:19-20*, in *Commentaries on the Twelve Minor Prophets*, vol. 1: *Hosea*, tr. J. Owen (Grand Rapids: Eerdmans, 1950), p. 116.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 메시지에 먼저 스스로 감동을 받도록 애써야만 한다.<sup>100)</sup> 그렇지 않으면 “설교란 단순한 잡담이나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에 스스로 감동하지도 않고 설득 당하지도 않은 채 천사처럼 말하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칼빈은 극도로 경계하였다.<sup>101)</sup>

칼빈의 설교에서 ‘효과’라는 주제는 칼빈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무시되어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설교에 관한 견진한 신학은 적어도 칼빈이 관련되는 한 그 ‘효과’와 연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sup>102)</sup> 그가 종종 지적했던 것처럼 설교의 효과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 특별히 제 삼위 하나님의 성령에게 달려있다. 칼빈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성령께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 설교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역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의 증거로 단지 성경의 탁월함에 대한 확신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그들 안에 비추실 때 설교되는 말씀을 비로소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다.<sup>103)</sup>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공허한 소리의 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신이다. 설교 말씀은 살아있는 어떤 것이며 사람의 구석구석까지 다루실 정도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다. 나는 설교 효과가 사람의 혀나 소리 자체에 달려있기보다는 전적으로 성령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 성령께서는 설교되고 있는 설교자의 말씀 안에다 이런 하늘의

100) Westhead, "Calvin," *Evangel*, p. 72.

101) J.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3), p. 81.

102) B.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eiden: E.J. Brill, 1970), p. 106; Naphy, *Calvin*, p. 154.

103) *Inst. 3.2.34*; *Inst. 3.24.8*; Van der Walt, "Calvin," p. 339; Parker, *Preaching*, p. 4.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sup>104)</sup>

외적인 설교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설교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인해 영적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sup>105)</sup> 우리는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 결합시키신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말씀과 성령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복음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음에 주목하였다.<sup>106)</sup>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설교의 효과는 왜 같은 설교 내용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청중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즉 설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듣는 자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같은 설교가 쇠 냉어리 같은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하여 설교를 듣기 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거절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sup>107)</sup>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다시 말해 이런 구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sup>108)</sup> 따라서 설교자에게 만이 아니라 청중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설교에 적합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sup>109)</sup>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처럼 성령께서 설교의 효과를 위해 두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

104) *Comm. on Heb. 4:12*, in Calvin, *Hebrews*, pp. 51, 52.

105) *Comm. on Lk. 1:16*, i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vol. 1, p. 12.

106) *Inst. 2.15.2*.

107) 칼빈에 따르면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 회개와 믿음으로 초대받긴 하지만 모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할 마음으로 자신들이 듣는 것을 수용하는 반면 동일한 설교가 또한 불신앙으로 인한 정반대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가시기 때문인데 설교는 그들의 영적 시력을 더욱 멀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 그들을 넘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Inst. 3.24.12*; *3.22.10*; *Comm. on Heb. 4:12*, in Calvin, *Hebrews*, pp. 51, 53; Wallace, *Doctrine*, p. 93을 볼 것.

108) *Inst. 3.24.12*.

109) *Comm. on Rom. 11:14*, in Calvin, *Romans*, p. 248.

심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른바 성령의 “이중 역사”(double operation)라 불리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경을 여신다. 동시에 같은 성령께서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어 그들이 들었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sup>110)</sup> 설교에서 이처럼 성령은 설교자가 말할 때와 청중의 듣는 행위, 양쪽 다에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효과적인 결과를 온전히 만들어내신다.

### 3.3 수사학

칼빈은 효과적인 설교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은사도 무시하지 않았다. 설교의 효과는 성경을 강해하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11)</sup> 칼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은사를 갖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배운 게 많고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지적인 능력이나 구변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교 대신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칼빈은 제안하였다.<sup>112)</sup> 칼빈은 자신의 신학적 저술들 안에서 수사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와 설교자와 신학자로서 그의 성공의 많은 부분이 그가 “당시 유럽의 가장 능력 있는 수사학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는 것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sup>113)</sup> 그는 수사학의

긍정적인 기능과 예술적인 차원에 매력을 느꼈는데 그 핵심은 의도적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경험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칼빈의 사고가 중세의 유명론자들(nominalists)로 대표되는 중세 후기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칼빈의 사고는 실제로는 16세기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특히 고전 수사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자들은 단지 논리만 의존하고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한 체 추상적이 기반 했던 중세의 스플라적인 설교를 거부하였다. 대신 인간을 이지적인 존재보다 감성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그들은 수사학의 실제 가치와 설득의 기술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성적인 사고체계보다 선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칼빈이 키케로(Cicero)나 쿠인털리안(Quintilian) 같은 라틴의 웅변가들에 대해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14)</sup>

수사학은 회중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채로운 언어와 화려한 밀주변으로 인해 설교의 논리성이나 정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칼빈이 지적하는 것처럼 빈틈없는 삼단논법이나 단순히 교리적인 설명만으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칼빈은 수사학을 능숙하게 사용함으로 교회 나오는 보통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진리, 즉 논리적일 뿐 아니라 또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영적 지식을 전달하려고 애썼던 것이다.<sup>115)</sup> 그 결과 제네바에 있던 칼빈의 청중은 확실히 그의 설교로 인해 회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깊은 감동을 맛보기도 했다. 이는 비단 칼빈의 설교 내용이 성경 진리에 아론적으로 정확히

110) Oberman, "Preaching," pp. 21-22.

111) *Comm. on Rom. 12:6*, in Calvin, *Romans*, p. 268.

112) *Comm. on 1Tim. 3:2*, in Calvin, *Timothy*, p. 225.

113) S. Jo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5), p. 2. 갤블(R.C. Gamble)도 파커(T.H.L. Parker)와는 대조적으로 인문주의적 수사학의 중요성과 이를 칼빈이 성경강해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R.C.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s,"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7 (1985), p. 16; Parker, *New Testament*,

p. 50f를 보라.

114) S. Selinger, *Calvin against Himself: An Inquiry in Intellectual History* (Hamden: The Shoe String Press, 1984), p. 162; Bouwsma, *Calvin*, pp. 14, 113-114; Willis, "Rhetoric," pp. 43-44; Breen, "Calvin," pp. 110-112; Battles, *Calvin*, pp. 47-64. 수사학과 관련하여 어거스틴이 칼빈에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는 Selinger, *Calvin*, pp. 156-157; Willis, "Rhetoric," pp. 49-50; Inst. 4.14.26을 보라.

115) Breen, "Calvin," pp. 128-129.

들어맞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청중들에게 감정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비유나 이미지가 풍부한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sup>116)</sup>

따라서 우리는 칼빈의 설교의 특징을 설교의 이중 목표라는 관점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우선 설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거이다. 동시에 설교는 그것을 듣는 청중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증거도 되어야 한다. 칼빈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가 설교의 “수사학적으로 응변적인 신학”(rhetorically eloquent theology) 안에서 긴밀하게 결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에서 수사학이란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설득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17)</sup> 칼빈에 따르면 성경의 이러한 설득력 있는 응변은 성령의 영감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시들은 종종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을 잘 보여준다. 이럴 때 성경은 그리스나 라틴의 수사학 대가들 못지않게 응변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나 키케로(Cicero)를 읽어보라. 플라톤(Plato)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나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놀랍게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무엇보다 이 거룩한 책으로 향하게 하라. 이 책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향을 줄 것이고, 심정을 페뚫을 것이며 여러분의 풀수에 그 내용을 새길 것이다. 성경이 주는 깊은 영향력에 비교하여 말하면 응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그 앞에서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다. 따라서 인간이 애써서 얻은 모든 재능이나 장점을 훨씬 뛰어넘는 이 거룩한 성경은 신적인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sup>118)</sup>

116) Jones, *Calvin*, p. 4.

117) 위의 책, p. 187.

칼빈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적인 교훈들을 더욱 힘있고 효과 있게 만드신 것에 주목하였다. 당시 수사학에 익숙했던 비판가들이<sup>119)</sup> 성경을 수준이 떨어지는 저술로 취급했던 것과는 반대로 칼빈은 성경의 수사학이야말로 경박하고 세상적인 어떤 수사학보다도 훨씬 설득력 있고 강력하고 효과 있다고 주장했다. 설교에서 이런 성경적 스타일의 수사학을 사용하여 칼빈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또한 그들의 감정을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청중의 의지를 자극하여 듣는 바를 실천하게 하는 설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표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sup>120)</sup>

#### 4. 결론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오늘날의 설교에서 칼빈이 차지하는 우선적인 의의는 무엇보다 성경의 중요성이다. 즉 성경만이 설교의 유일한 원천이고 내용인 것이다. 이 점에서 설교란 곧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118) *Inst.* 1.8.1.

119) 예를 들면 유명한 수사학자들인 안드레아스 알시아티(Andreas Alciati)와 로렌초 발라(Lorenzo Valla)를 들 수 있다. Jones, *Calvin*, pp. 16, 23-24을 보라. 또한 같은 책 p. 38에서 각주 15번과 p. 41의 각주 43번을 볼 것.

120) *Comm. on Mt. 13:10*, in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vol. 2, p. 63; W. Walker, *John Calvin, the Organizer of Reformed Protestantism* (New York: G.P. Putnam's Sons, 1906), p. 433; Bouwsma, *Calvin*, pp. 122-123; Gamble, "Understanding," pp. 13-15; "Calvin as Theologian and Exegete: Is There Anything New?"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 (1988), p. 192. 또한 Packer, "Servant," p. 41과 비교해볼 것. 성경의 내재적인 응변과 이를다음에 덧붙여 칼빈은 성경의 평이하고 단순한 스타일이야말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데 최상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다. *Inst.* 1.8.1; *Comm. on 1 Cor. 2:13*, in *Calvin, The First Corinthians*, p. 60; Parker, *Preaching*, pp. 139-141, 143을 보라.

정의할 수 있다. 만일에 설교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들의 임무 역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sup>121)</sup> 칼빈의 설교가 이처럼 성경의 계시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편 그는 또한 설교의 기능이 단순히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성경의 명제들을 전달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이라고 믿었다. 그에게는 설교의 우선적 임무가 회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가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처럼 설교를 듣는 것은 일종의 경험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신적인 실재를 맛보는 사건인데, 이는 언제나 느낌과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설교자가 아무리 재주 있고 능력 있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대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설교자와 회중 둘 다에게 능력과 빛을 더해주실 때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럴 때 회중은 자신들이 듣고 있는 바에 사로잡히게 될 뿐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에 대한 설득적인 지식을 얻게 된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도록 인도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칼빈은 진정한 설교의 여부를 논리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기능과 결과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는 설교에 대해 실제적인 견해를 가졌던 것이다.

또한 칼빈은 인간의 합리성이나 세속적인 용변을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 수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였다. 그는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설교자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과 설득력 있는 수사학적 언어는 설교의 효과를 위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의 설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교회가 그 본질에 있어 말씀공동체이며 따라서 모든 교회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라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칼빈은 설교에서 말씀의 효과성, 즉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말씀과 경험은 그의 설교에서 두 개의 주요 가동인 바 그는 둘 중 하나만으로는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기에는 익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칼빈은 자신의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는 일에 쉬지 않고 추구하였고 이런 원리는 오늘날의 설교에도 여전히 크게 필요한 것이다.

121) Leith, "Doctrine," p. 39.